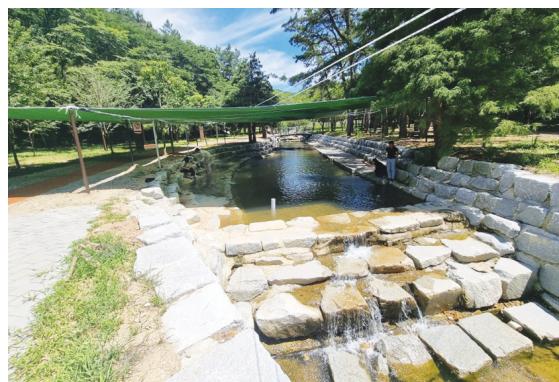


시원한 계곡에 물놀이까지… 여름 휴가자로 변신



시원한 계곡에, 도심 속 물 놀이까지. 익산이 여름 휴가자로 변신했다.

익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선물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큰 상처를 입었던 웅포 송천계곡이 피서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영등시민공원과 유천생태습지 등 도심 곳곳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터도 가동을 시작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웅포면에 위치한 송천계곡

▲송천계곡, '안전+편의' 강화
송천계곡은 지난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 유입, 호안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익산시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도비 2억원을 확보해 올해 3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복구 공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복구 공사는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항구적인 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계곡 상류에는 시방댐을 보강하고 물수로를 설치해 산사태 위험을 줄였다. 본류에서는 준설과 하류 호안 보강을 통해 토사 유입을 차단했다. 지류에는 개비온(돌망태) 담장을 설치해 유실을 막는 등 다층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가뭄 시에도 계곡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류에 물을 가두는 보(댐)를 추가 설치해 담수 능력을 강화했다. 담수된 물은 펌프를 통해 상류로 순환시켜 계곡 물 흐름을 유지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했다.

작년 7월 호우 피해 입어… 재해복구 완료
항구적 안전대책·편의시설 확충… 휴양지로
도심 속 피서 공간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안전 최우선"… 정현율 시장, 현장점검 나서

지난달 26일 송천계곡과 도심 물놀이 시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한 정현율 익산시장.



는 지난주부터 가동을 시작해 벌써부터 많은 가족이 찾고 있다. 이곳에는 미끄럼틀과 유아용과 아동용으로 분리된 풀장, 물 분수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어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와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불시 안전 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정현율 익산시장도 지난달 26일 송천계곡과 도심 물놀이 시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정 시장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송천계곡을 비롯한 익산의 물놀이 명소가 안전과 편의성 모두를 갖춘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

순창강천힐링스파

다양한 건강체험,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 등
이제 새로운 순창을 경험해보세요

HEAL FROM WATER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강천힐링스파